

불자들도 ‘촛불’ 들고 거리로...

6.10항쟁 맞아 불교인권위 등 26개 단체 촛불집회 동참



“스님들도 촛불 들었네” 6월 10일 촛불 집회에는 불자들도 함께 참여, 민심과 함께 했다.

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회장 법안 스님은 “<수미경> 서품에서는 ‘중생이 아달로 보살의 불국토’라 했다”면서 “불제자로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함께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법회를 마친 후 광화문까지 거리행렬을 펼치며 70만 인파가 몰려든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촛불의 열기는 뜨거웠다. 광주불교대책

회의는 광주 원각사에서 특별법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광주불교사업원, 광주불교교육원, 광주불교환경연대, 호남불교문화원, 광주전남포교사단, 원각사 청년회, 육화포럼 등 광주지역 불교단체들이 결성한 광주불교대책회의는 이날 원각사 법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와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법회 후 광주 금남로 문화의 전당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동참했다.

또한 부산에서는 종교시민단체 대표단의 삼보일배가 이어졌다. 서면 주디스태화 앞에서 시작된 삼보일배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인 정자 스님과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안현원 목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권경렬·김준환 신부 등 10여명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들은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공기업 민영화, 학원 자율화 등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즉각 실시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명보를 직접 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강원불교연합회(회장 정범)는 6월 6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은 물론 의료보험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전국 100만명 참여(주최측 집계, 경찰 집계는 12만명)로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촛불집회는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 문화 행사로 마무리됐다.

김강진 기자·양행선 광주지사장

“북한동포 아픔 함께 나눠요”

화계사, JTS에 성금 전달...연기자들도 거리캠페인 나서

아사 직전의 북한주민들을 돕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에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1일에는 화계사(주지 수경)가 서울 서초동 JTS회관 소강당에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화계사는 6월 5일부터 1주 동안 사내(寺內)에서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모으었다. 1000만원이면 밀가루 14톤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 화계사의 성금전달은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 사찰 단위 참여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연기자들도 북한동포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나서 화제가 됐다. 연기자 배종욱·김여진씨와 북한사랑낭만을 다룬 영화 ‘크로싱’ 지역배우 주다영 양은 6월 12일 서울 인사동에서 직접 모금함을 들고 나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실



연기자 김여진씨, 지역배우 주다영 양, 연기자 배종욱씨(사진 왼쪽부터)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상을 알리며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연기자들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현재 북한상황은 1997년 300만 명의 아사자를 낸 ‘고난의 행군’ 때와 흡사하다”며 “이대로 가면 울

춘궁기에 최소 20만 명이 아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은 6월 13일 현재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기 위해 19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다.

김강진·노덕현 기자

“中·미안마에 도움의 손길 전해요”

긴급구호운동본부 명동서 거리모금 캠페인

140여 종교·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중국·미안마 돕기 긴급구호운동본부’(이하 긴급구호운동본부)가 6월 11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거리모금캠페인은 스포츠센터와 사이클론 ‘나르시스’로 고통 받는 중국·미안마 국민을 돕고 이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

해 진행된 행사다.

이날 거리모금캠페인에서는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을 비롯한 긴급구호운동본부 발기인 대표들이 직접 나서 전단지 배포, 일반시민에게 중국·미안마 상황을 전하며 모금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캠페인에 앞서 열린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모금활동 사업계

획서 안전 토의가 진행됐다. 공동대표단은 이날 ARS모금 및 공익광고 공중과 방영, ‘중국·미안마 돕기 콘서트’ 개최 문제, 각 지역 종교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모금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 스님은 “불국사에서 지역성금 100만원을 보내 왔듯이 지역 사찰, 교회와 연계를 활성화한다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지닐 것”이라며 종교, 시민단체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보우승가회 와해말라”

태고종 총무원에 촉구

“태고종 총무원은 보우승가회를 와해시켜 징계하기 위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보우승가회(회장 도산)는 6월 12일 태고종 총무원의 보우승가회 해체를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우승가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태고종 총무원은 행정부원장 명의로 전국 시도교구총무원에 공문을 보내 보우승가회 회원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보우승가회 회원들은 각 지방 총무원의 회원탈퇴 강요와 불이익 등의 협박에 현혹되지 말고 각자 태고종단을 바로 세우고 불의에 대응한다는 회원으로

서의 자부심과 소신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우승가회는 또 “사찰 재등록과 승려분할 신청서에 들어있는 서약서는 현대판 노예 길들이기와 같은 족쇄”라며, “종도들은 종단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불련부당한 일들은 과감히 중앙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기자

“사탄 눈에는 사탄만 보인다”

추부길 비서관 ‘사탄 발언’에 불교계 등 비난 봇물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사진)이 지난 6월 5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을 겨냥해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발언,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불교계 등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은혜사 주지가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공개반박 편지를 보냈다. 지관 스님은 “추 비서관은 공무원으로도, 목사로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인식)는 6월 9일 ‘청와대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총평위는 논평을 통해 추부길 비서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김강진 기자

“국방장관과 최종안 논의할 것”

10.27추진위, 특별법 시행령안 관련 면담 요청

‘10.27법안’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원학·법안)가 추진위가 위원회의 차급급격상 등을 최종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시행령안 재수정과 국방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추진위는 6월 11일 제6차 회의를 갖고, 국방부가 수용을 거부한 위원의 차급급 이상 격상과 참여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청 배제를 최종

요구기로 결의했다. 추진위는 “국방부가 제정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안으로 불교와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며, 장관면담을 통해 최종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6월 18일까지 조계종의 재요청안이 거부될 경우, 추진위의 비상대책위 전환과, 국방부장관 퇴진운동 등 강경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성우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 구석청소 **마이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iN 마이로봇

성명서

태고종 총무원은 보우승가회를 와해시키고 징계를 하기 위한 비열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태고종 총무원은 행정부원장 김월해의 명의로 전국 시도교구총무원에 공문을 보내 보우승가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이 운산 총무원장님은 공문에서 보우승가회를 일부스님들의 친목단체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보우승가회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이런 공문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다.

1. 보우승가회 회원들은 종단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한다.

그동안 보우승가회는 수차례에 걸쳐 총무원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스님께 종도들에게 회자되는 의문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서로 집의를 하라고 하여 문서로 보내면 정차 답변이 없고 보우승가회가 근거 없이 종단을 흔들려고 한다고 공문에서 종도들에게 진의를 왜곡하여 악의적으로 음해를 하였다.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서 하려고 들어주지를 아니하니 언론에 성명서를 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문제 삼아 회원들을 뒷조사하도록 총무원에 지시를 한다니 과연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는 종도들을 위한 총무원인가 아니면 원장제인을 위한 총무원인가 우리는 종단을 염려하고 종단이 잘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사실을 종도들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면 된다.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상을 밝히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종도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뒷조사를 하는 것은 종도들을 위함이 아니다.

2.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도 총무원의 부당한 지시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태고종은 법란의 관에서 공권력과 무력에 의해 힘입어 길거리로 쫓겨나 각자 작은 토굴과 한 칸 전셋집에서 출몰하였다. 종단이 잘나서 도와 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간절한 기도정진과 열정으로 절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서로의 힘은 처지를 총무원이나 비련 모임을 통하여 위로하고 이해하

여왔다.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한 스님들을 무슨 큰 잘못을 하였다고 조사하고 징계하는데 동의할 수 있던 발인가. 절대 그렇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보우승가회 회원스님들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종단이 잘되도록 작지만 성금을 내서 성복동 총무원을 세웠고 또한 전승관을 세우는데도 협조하였다. 보우승가회가 전승관 불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여 종도들과 이간시키지 말라. 보우승가회는 친목단체이지만 분명히 보우 승가회 명의의 성금을 냈으며 또한 회원들도 각자 형편껏 성금을 냈다. 또 일부 형편이 어려운 회원은 이번에는 못 냈을 수도 있다. 이번만 잘 해야 태고종도이고 전자에 잘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3. 총무원 행정부원장은 전국의 총무원에 내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징계가 능사인가. 우리는 그간 대외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였고 지금도 원한다. 총무원은 종도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곳이다. 종도들의 거러온 곳을 굶여 주고 이런 곳을 아무만저 주는 곳이어야 한다. 순수한 애증심에서 종단의 문제를 걱정하는 스님들의 조사는 즉각 철회해야한다. 언제부터 총무원이 행사 때마다 수십 명의 호위승려들을 거느리고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특정한 일벌백제 징계 운운하는데, 20명의 호위승려 숫자가 부족하여 50명으로 늘리다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내가 해야 정당하고 나만이 종단을 염려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오만 불순한 생각이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태고종이 산다. 뜻있는 종도들의 일을 막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순박하므로 하늘을 거뎐다고 하늘이 가려지지가.

보우승가회 회원 제위는 각 지방 총무원의 조서에 응하여 회원탈퇴 강요와 추후 불이익 등의 협박에 의연히 대처하여 각자 태고종단을 바로 세우고 불의에 대응한다는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신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찰재등록과 승려분할신청에 대한 정당한 주장

태고종 총무원은 사찰 재등록과 승려분할 신고를 새로 받는다 고 각 사찰에 신청서 양식을 보냈다. 그런데 이 신청서에 전국의 많은 종도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와 걱정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1.재등록? 분할신고? 일반사찰 주지스님들이나 교인들은 이런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총무원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종도들이 싫어하는 일을 벌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내용도 문제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사찰재등록증과 승려분할 신고서를 보면 사찰 분담금 납부현황, 승려 의무금 납부, 전승관 건립기금, 종단발전 성금 납부현황을 기록하는 곳이 있다. 분담금제도는 이미 금년부터 지방총무원으로 이양되고 총무원은 의무금 12만 원만 받으면 된다. 이미 소멸된 제도를 세삼 또 열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승관 건립기금이나 성금도 총무원에 성금 받은 기록이 담겨있을 텐데 굳이 또 내용을 쓰라는 이유가 뭐지? 지방의 산간벽지의 사찰뿐 아니라 도시의 사찰들도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중앙의 높은 직책에 앉아 계신 큰스님들은 그 사정을 알거나 하는지? 자기들이 서류 한 장만 들춰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굳이 기록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일선 주지사 교인들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성금을 안낸 곳은 앞으로 불이익을 주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서약서는 현대판 노예 길들이기 족쇄인가?

태고종 사찰 사장은 기본적으로 총무원의 재산이 아니다. 아마 총무원이 더 잘 알 것이다. 종도로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의 의사와 맞지 않으면 누구나 사정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최어도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 그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종단이 되겠다는 것인가. 내용은 아주 교묘하게 ‘종단에서는 사찰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특히 재산관리, 처분 등은 사찰의 주지(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은---,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종단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이에 확인’ 운운. 이 말은 앞 뒤가 맞지도 않는다. 주지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면서 어째서 종단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수 있겠는 말인가. 특히 7년 황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다. 민주국가에서 불련부당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사회법에 호소할 수 있다. 무슨 재주로 막는단 말인가? 무지하고 법을 잘 모르는 종도들을 협박하기위해 임포를 놓는가? 정적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태고종은 창종 이래 40년 가까이

사찰사장의 모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왔다. 이제 숫자도 늘어나고 종단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배부른 소리가 나오는지? 총무원은 그런 지출한 방법으로 사찰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종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종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개 사찰종단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부에 대한 민원이거나 복지 분야 국제적인 교류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종도들도 잘 살피서 할 말은 해야 한다. 종단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불련부당한 일들은 총무원장에게 나서서 과감히 중앙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종도들이 선출한 총무원장이 종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 서약서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다.

2008년 회원 모집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전국의 태고 종도 여러분께 알립니다.
보우 승가회는 불조의 혜명을 이어 불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단의 발전을 영원하는 호교 애종하는 승가 단체입니다.
불교 발전과 정법구현을 영원하는 본회의 취지에 찬성 하시는 제방의 대덕 스님들에게 본회의 가입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가입 방법 : 직접 전화 접수나 자필 가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 3동 7-26번지
전화 : 02)763-5213~4 팩스 : 02)747-9290
E-MAIL : boowoosam@yahoo.co.kr

보우승가회 회장 이도산 합장

2008년 6월 12일

한국불교 태고종 보우 승가회 회원일동